

유탄유 업계 동향

SK (주)

광진공, 호주 유연탄광 50% 지분 인수

SK주식회사(대표 신현철, www.skcorp.com)가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와 양사의 공동 투자사인 호주 현지법인 Springvale SK Kores Pty Ltd.를 통해 연간 300만 톤 생산 규모의 해외 유연탄광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사는 27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센테니얼(Centennial)사가 보유한 앙구스플레이스(Angus Place) 유연탄광 지분 25%씩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0% 지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500억 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해외에서 연간 150만 톤의 발전용 유연탄을 자주개발하게 됐다. 이는 국내 유연탄 자주개발률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양사는 지난해 7월부터 광산 현지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을 실시, 센테니얼사와 투자협상을 벌여왔다. 센테니얼사는 13개 탄광에서 1,800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하는 호주 석탄개발 전문기업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리스고시 북서쪽 15km에 위치한 이 광산은 현재 생산광구로 약 3,000만 톤의 가채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가행연수(사업지속가능연수)는 10년이다. 특히 이 광산은 지난 2000년부터 SK(주)와 광진공이 50% 지분을 가지고 생산에 참여 중인 스프링베일 유연탄광과 인접해 있고, 탄질도 동일하다.

SK(주) 관계자는 “탄광 개발시 스프링베일 개

발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십분 참고하여 효율적인 개발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주)는 앙구스플레이스 탄광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호주에 4개 생산탄광과 3개 탐사 프로젝트를 보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분생산량이 연간 180만 톤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SK주식회사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SK는 “한층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자회사들의 독립된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지주회사격이던 SK(주)를 지주회사(가칭 SK홀딩스)와 사업자회사(가칭 SK에너지화학)로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큰 그림을 그린다.

SK(주) 신현철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을 전담하며, 사업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갖춰 사업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정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계열사 동반부실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주) 관계자는 “지난 2월 실시한 해외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의사를

## 윤활유 업계 동향

밝혔다”며, “이와 같이 주요 주주들은 물론 정부, NGO 등 대외적으로도 대기업을 지주회사 전환에 의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SK(주)는 2004년 이후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멤버를 전원 사외이사로 두는 등 국내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이번 의사결정 역시 이사회와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SK는 지주회사가 SK에너지화학(가칭),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주요 사업자회사를 거느리는 식으로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게 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SK에너지화학(가칭)은 에너지/화학의 고유 사업영역에 전념할 여건을 갖추게 되며, 그간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Discount 요인도 해소된다.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의 경우에는 독립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지분구조 단순화 과정에서 보유해온 자회사 지분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SK(주)의 회사분할은 분할 후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보유지분 비율에 맞춰 교부되는 인적분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7월1일부로 회사가 분할된다. 그에 앞서 SK(주) 임시주주

총회 특별결의(5월29일 예정)를 거칠 예정이다. 지주회사가 존속법인이 되고, SK에너지화학(가칭)이 신설법인이 된다.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SK(주)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이 지주회사의 주요 자산이 되며, SK에너지화학(가칭)은 고유 사업영역인 에너지/화학 업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과 SK인천정유, 대한송유관공사 등 사업영역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회사 주식들을 자산으로 가지게 된다.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나뉘지며, SK(주) 1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0.29주, 사업자회사 주식 0.71주를 받는 식이 된다. 부채 역시 양사 회사 운영의 성격에 맞게 교부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양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SK(주)의 생명과학(Life Science) 사업 부문(의약개발 등)과 관련된 자회사 지분은 지주회사에 남는다. 이는 생명과학과 같은 신규사업의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지주회사 본연의 임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서는, 양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SK(주)에서 출자한 자회사를 관리해온 기존의 투자회사관리실을 주축으로 조직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SK(주)의 기존 임직원 대다수는 신설법인인 SK에너지화학(가칭) 소속으로 되며, 신설법인은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므로 임직원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유탈유 업계 동향

GS칼텍스 (주)

許昌秀 GS회장,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준비 당부

GS(대표: 許昌秀)는 18일 역삼동 GST타워에서 許昌秀 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임원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GS 임원모임’을 가졌다.

‘GS 임원모임’은 분기에 1회 정도 수도권지역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경영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임은 許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미지 디자인 컨설팅사 이종선 대표의 강연, 계열사별 공유사항과 토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許昌秀 GS회장은 이날 임원들에게 최근 타결된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등 경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개방과 변화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許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4분기에 대체로 소기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분기의 경영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許 회장은 “1/4분기를 지나면서 돌아보니 연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중국의 물가상승 및 긴축정책과 미국의 부동산 부실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許 회장은 “국내 일부 경제지표들은 호전되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전반적인 추세나 원유가의 등락도 예사롭지 않다”며 우리 경영환경에 부담이 되는 현상들을 지적했다. 許 회장은 또 “여러가지 불안요인들로 인해 미국 경기와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許 회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성장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영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도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에 타결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許 회장은 “이번 협상은 일부 예외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기로 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타결이 되었다. 직접투자 문제와 같은 개별이슈들도 예상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도출해 내었다”고 평가하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거세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許 회장은 “GS의 사업성격상 한미 FTA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하

윤활유 업계 동향

는 과정의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임원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위협요인을 관리하고 기회요인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許 회장은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개방의 큰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GS가 새롭게 진출하려고 계획중인 사업분야들 가운데에는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분야들도 많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면서, “시장과 경쟁의 구조가 바뀌면서 당초에는 예상치 않았던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許 회장은 “앞으로도 지난 1/4분기에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변화의 스피드를 몇 단계 높이지 못하면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고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S-Oil (주)

사우디 아람코 주마 총재 “에너지 안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社의 압달라 에스 주마(Abdallah S. Jum'ah) 총재가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주마 총재가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과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간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주마 총재는 “이번 명예박사학위는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우디 아람코 대표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우디 아람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준 아람코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95년부터 사우디 아람코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마 총재는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보 :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공학, 금융, 기술적 요인 이외에도 국내외 정책들이 생각과 달리 에너지 공급 안보 및 에너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주마 총재는 에너지가 현대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 “자동차·트럭·비행기의 연료, 식량 재배에 사용되는 비료, 치료용 의약품, 플라스틱 등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단 하루도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업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 현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이슈를 간과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일부 근시안적 정책과 행동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주마 총재는 석탄, 원유, 천연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이 향후 몇 십 년의 수요 증가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이런 에너지

윤활유 업계 동향

원들이 기타 다른 경제, 정치 및 환경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때문에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유전 탐사 활동 제한, 신규 설비 건설 규제, 몇몇 주요 생산업체에 투자 제한, 정유제품 특별세 부과 등을 지목했다.

정치, 경제, 환경 정책이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슈마 총재는 “우리가 에너지 현안을 좀 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고 경제적 또는 정치적 정책 결정들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슈마 총재는 이어서 역내 및 글로벌 정치 현안 등이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보, 특히 석유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에너지 공급량, 설비 투자 여력,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 등이 업계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의 정치학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면서 현 에너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치적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슈마 총재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멀리 유럽 경제까지도 중동의 정치 상황과 석유 자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탄화수소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석유시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 끝부분에서 슈마 총재는 에너지 안보, 정치경제학적 영향, 환경 및 공공 정책 사안 등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원활한 에너지 공

급을 위한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과 제각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용적 해결책과 전략을 마련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더 큰 풍요와 기회를 낚는 에너지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슈마 총재는 아랍어 전공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강연의 끝부분은 아랍어로 말했다. 그는 사우디 아람코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도 한국에 있었고, S-Oil이 작은 합작회사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성공한 아시아 기업 중 하나로 커가는 과정을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라고 말했다.

슈마 총재는 지난 15년간 한국을 수 차례 방문하면서 비즈니스 유대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국과 한국인, 한국 역사, 문명, 유산, 언어, 음식 음악까지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과 경주남산 등반 야유회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은 5월 26일 시각장애인 100여 명과 함께 경주 남산 일원에서 동반 등산 행사인 『S-Oil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우 경주남산 등산 행사』 를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에쓰-오일(주) 공장장인 하성기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봉사단 40명과 시각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110여 명 등 총 150여명이 참가하여 경주 포석정을 출발, 3시간 동안

윤활유 업계 동향

남산일대에서 산행과 여흥시간을 가진 후 인근 휴양지에서 온천목욕과 식사를 같이 하는 등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등반에 앞서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후 시각장애인들의 일대일(1:1) 안내원이 되어 산행과 온천 등의 일정을 진행한 봉사단원들은 수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수족역할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는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울산시각장애인선교회의 김인철 목사는 사회 적응이 어려워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등산 등 야외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셀석유 (주)**

Rimula NC 15W/40 대우버스  
CNG 승인 획득

한국셀석유(주) CNG오일인 Rimula NC 15W/40 이 오랜 시험을 마치고 대우버스(주)로부터 CNG용 오일로 정식 승인되었습니다. 이

는 한국셀 Rimula NC 15W/40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것이며, 고객들의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7년 제1회 고객초청 행사

2007년 제1전 스피드 페스티벌 (2007년 3월 25일)에 동부프로미 가맹점 사장님들과 가족분들을 모시는 초청행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참석하시어 체험주행, 발맞사지행사 및 경품행사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한국발보린**

광택 세정제 Eagle One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의 선두 기업인 (주)한국발보린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발보린 브랜드의 윤활유와 더불어 발보린의 자동차 세정 및 광택제 전문

### 윤활유 업계 동향

브랜드인 Eagle One (이글 원) 제품을 2007년 4월부터 국내에 선보입니다. 이글 원은 발보린의 자회사로서 업계 최초로 나노 기술을 광택제에 적용한 미국의 광택/세정제 선두 기업입니다.

이글 원은 'Ultimate Showroom Result'란 모토아래 각종 세차용품 및 광택용품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전문 휠 광택/세정제, 타이어 광택제, 가죽 보호제, 인테리어 용품 및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 군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나노 기술이 적용된 특화된 광택제를 개발 소비자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 제 15 회 팀발보린 개최

주)한국발보린에서 (주)한국발보린 본사와 대리점간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 15 회 팀발보린 행사를 5월 18~19일 양일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번 행사에서는 대리점 가족 단위로 약 190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우수사원 표창, 프리젠테이션 발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족구행사와

팀발보린의 밤 행사로 본사 직원과 각 대리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수사원 표창은 각 대리점 사장님의 추천을 받은 사원에게 금과 상패를 수여하였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엔진오일과 새로운 광택/세정제 이글원 그리고 케미컬 제품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술 교육과 터보 카센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을 소개하였습니다.

대리점 별 족구 토너먼트는 브이상사, 경남상사 연합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팀발보린의 밤 행사는 사조 리조트의 강당에서 뷔페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 무대에서 여자 팔씨름 대회, 커플게임, 아이들 장기자랑, 노래자랑, 디스코타임 등 다채로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을 콘도에서 보내고 다음날 온천욕을 즐겼으며 마지막으로 강당에서 폐회식을 가지며 경품 추첨을 하였습니다.

